

기웅정보통신 사례분석: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상품 제안"

2021. 11. 25.

MEMBERS



홍태호 (지도 교수)

1인 가구 상품 제안



홍준우 (석사과정)

양수연 (학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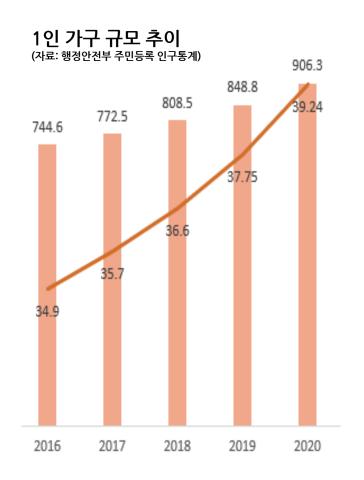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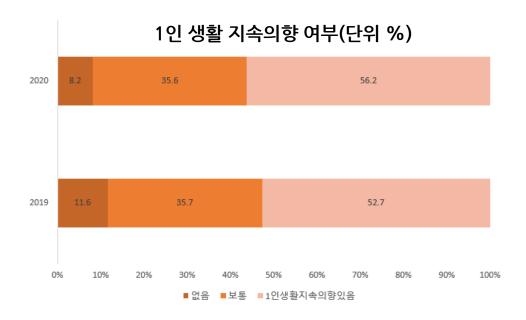
Part 2 .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상품 제안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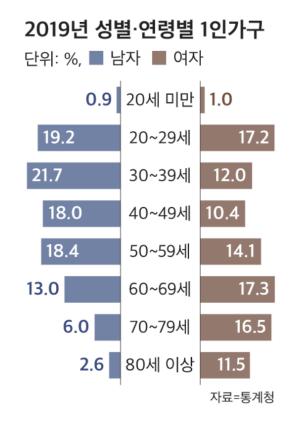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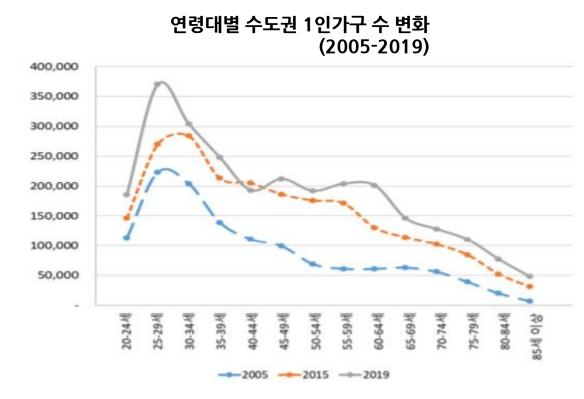


- 독립적 삶 추구, 결혼 인식의 약화, 인구 고령화, 소득수준 하락 등 개인적·사회적 요인과 선택의 결과로 1인가구로 거주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국토연구원, 2011).
- 올해 10월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섰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INTRODUCTION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 노인 여성 중심이던 과거 1인가구에서 **현재는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가 증가**하였으며, 도시지역에서 **청년층의 1인 가구화**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함(국토연구원, 2020).

INTRODUCTION



"전기료 오르고, 청약 불이익받고"...외면받는 1인가구

1인 가구 40%는 월세… 54%는 주거면적 40㎡ 이하

-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도 높은 편이라 **주거여건이 열악한 상황임**(국토연구원, 2021).
- 이들은 각종 정책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이미연, 2020).

MVPG

Mission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Principle

자산가치가 낮은 1인가구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통해 고객의 성실함을 판단하여, 성실하지만 자산가치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Value

1인 가구 중 자산가치가 낮은 세대에게 조금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 세대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Goal

Powerful Question

자산가치가 낮은 1인가구에게

정말 필요한 금융서비스는 무엇일까?

MVPG



■ 나이: 27세 여성

■ 소속: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위치한 OO금융기관에서 근무

- 위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회 초년생
- 능력치:

■ 경제력: ●○○○○

■ 사회참여도: ●●○○○

■ 성실도: ●●●●○

■ 소비성향(절약정신): ●●●●○

※ "바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전략적 소비가 필요한 사회 초년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라이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직장 주변에 원룸을 잡고 거주하며, 매달 관리비(월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며, 소비생활에서 전략적 소비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않은 고정비용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취업 후 워라벨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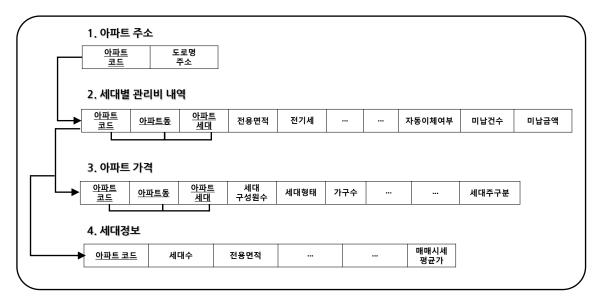
열망하던 회사에 취업을 성공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며, 직장내의 기여도가 낮아 적은 월급(연봉)을 받고 일을 한다. 또한, 직장 업무와 퇴근 후 생활의 적절한 워라벨을 찾아 개인적 만족도를 채우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써 내적 만족도(심리적 만족감 등)와 외적 만족도(명품구매 등)를 채우지 못한다.

[서울로 상경하여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 전략적 소비습관을 행동화]

사회구성원으로써 살다 보면 주변 지인 및 가족들과 관련된 불특정한 일(지인의 결혼식, 애인의 기념일, 부모님 생신 등)이 발생하여 계획에 없는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비용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전략적으로 줄여 가기를 희망한다.

Analysis & Result

DATA PREPROCESSING



데이터 종류	기간	데이터 수	총 데이터 수	
아파트 주소(APT_MST_LAST)	·	4,646		
세대별 관리비 내역(STAT_MASTER)	2021.02~07	1,792,816	67,234	
아파트 가격(APT_SISE)	2021.08.02	12,519		
세대정보(TRS_RSD_LAST)		2,170,721		

1. 아파트 주소

■ **도로명주소 변수**에서 "서울특별시 " 인 데이터만 추출

2. 세대별 관리비 내역

- "주소 데이터" + "세대별 관리내역 데이터" 결합01: 아파트 코드 (세대별 관리내역 데이터: 2021년 2월 ~ 7월 기준)
- **정상거주여부 변수**가 갖는 "1" 요소로 데이터 축소 및 변수 제거
- **전출일자 변수** 전체가 결측값이므로 변수 제거

3. 아파트 가격

• "결합01 데이터" + "아파트 가격 데이터" 결합02: 아파트 코드, 아파트동, 아파트세대 (아파트 가격 데이터: 2021년 8월 2일 기준)

4. 세대정보

- "결합02 데이터" + "세대 정보 데이터" 결합03: 아파트 코드, 아파트동, 아파트세대 (세대 정보 데이터: 2021년 2월 ~ 7월 기준)
- 세대주 변수에서 "l(개인)" 요소로 데이터 축소
- 세대형태 변수에서 "1(아파트)" 및 "3(오피스텔)"로 데이터 축소
- 가구수 변수에서 "1" 요소로 데이터 축소
- 이상치 제거
 - 차량수(11 이상), 최소 주거면적(14 미만), 세대구성원수(16 초과)
- 데이터 결측치 제거 및 "0"으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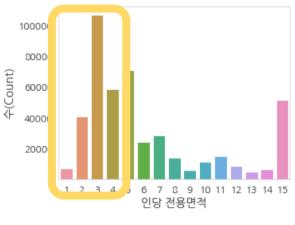
HOUSEHOLD SEG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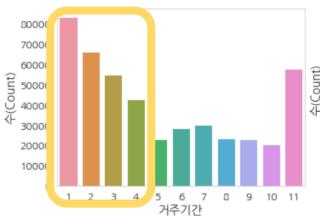
〈1단계 고객 세분화: 자산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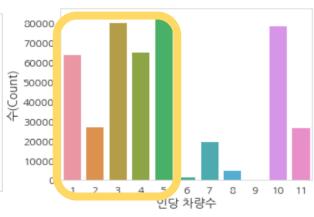
2021. 07. 데이터 기준

기준	변수명	기준	범주 수	축소범위
	아파트 시세	3억/6억/9억/12억/12억 초과	5개	12억 이하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자산	인당 전용면적	14㎡/21㎡/28㎡/…/105㎡ 초과	15개	35㎡ 이하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 소득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
가치	거주기간	2년/4년/6년/…/20년 초과	11개	8년 이하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 평균 거주기간)
	인당 차량 수	0/0.2/0.3/…/1/1대 초과	11개	0.5대 이하 (통계청 발표 - 전국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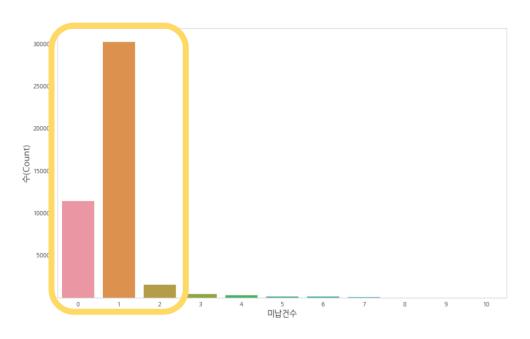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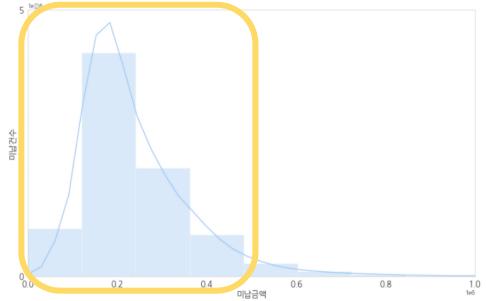
세분화 전 1인가구의 자산가치

HOUSEHOLD SEG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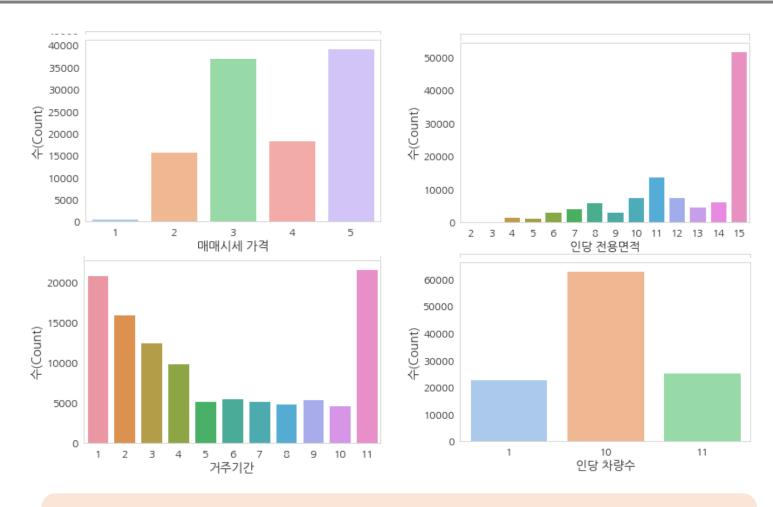
〈2단계 고객 세분화: 성실도(관리비 미납내역)〉

기준	변수명	축소범위
관리비 납부현황	미납건수	최근 6개월 내 0~2건 (단, 두 달 이상 연속해서 미납이 있었던 세대는 제외)
	평균 미납금액	미납 1회당 평균 미납금액 50만원 이하





세분화 전 1인가구의 자산가치



자산가치가 높은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데이터가 원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지 않는 **아파트 데이터 특성** 때문이라 판단됨.

고객 세분화 후 자산가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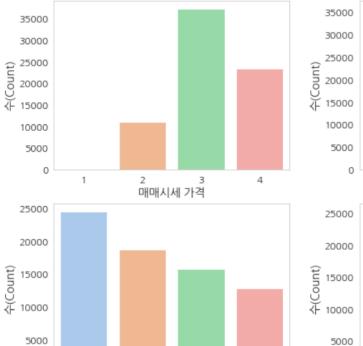
HOUSEHOLD SEGMENTATION

1. 아파트 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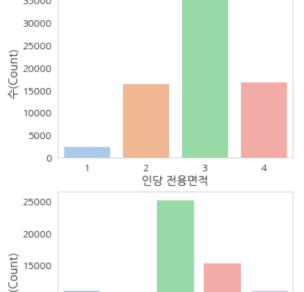
- 3억 미만, 6억 미만, 9억 미만, 12억 미만 등 총 4개 그룹으로 범주화함.
- 그룹3(6~9억)에 해당하는 분포가 가장 높음.

3. 거주기간

- 거주기간을 1~8년까지 제한하였으며, 2년 단위로 그룹으로 범주화함.
- 그룹1(1~2년)에 해당하는 분포가 가장 높으며, 점차 감소하는 형태가 됨.



거주기간



인당 차량수

2. 인당 전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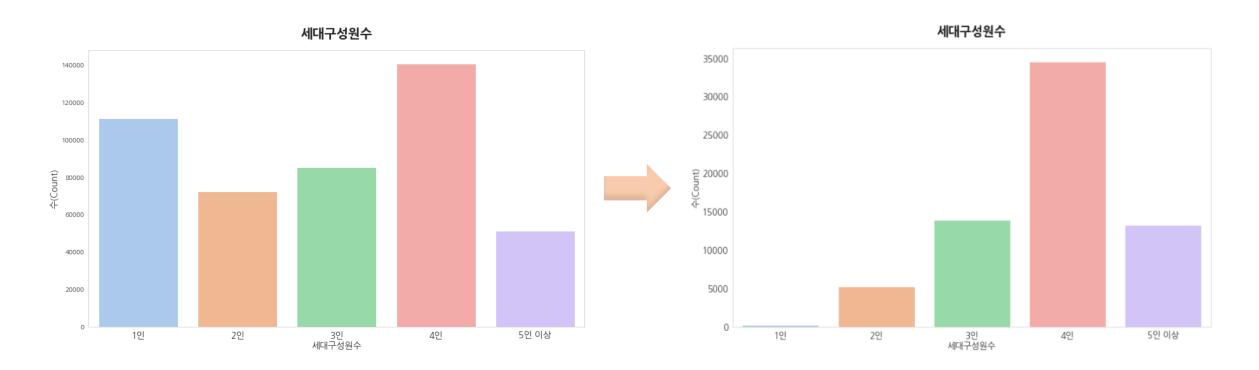
- 인당 전용면적을 평수로 환산하여 4.5평, 6.5평, 8.5평, 10.5평으로 그룹화함.
- 그룹3(인당 8.5평 이하)의 빈도가 가장 높으며,4인 가구를 예를 들면 34평 수준임.

4. 인당 차량대수

- 0대, 0.2대, 0.3대, 0.4대, 0.5대로 총 5개 그룹으로 범주화함.
- 그룹3(인당 0.3대)에 해당하는 분포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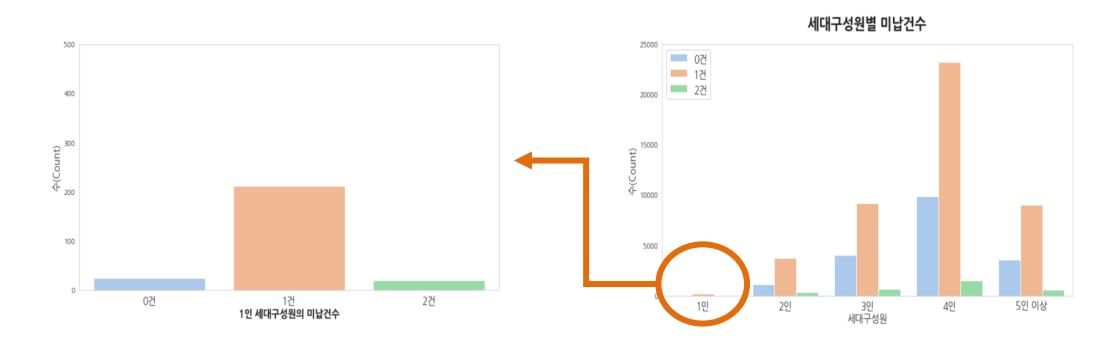
세대구성원 수 분포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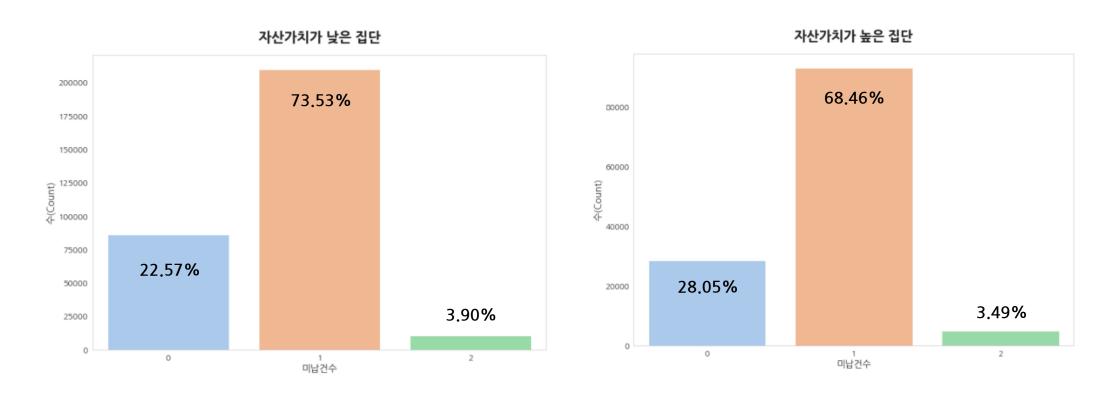
고객 세분화 이후, 세대구성원수의 1, 2, 3인 가구의 비중이 감소했으며, 특히, 1인 가구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관리비 미납건수



- 대부분 세대형태에서 **6개월 동안 관리비 미납내역이 1건 이상 존**재함.
- 1인 가구에서 관리비 미납건수는 **1건이 82.49%로 가장 많고, 0건은 9.73%, 2건은 7.78%를 차지함.**
- 1인가구의 관리비 미납건수 현황은 다른 가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유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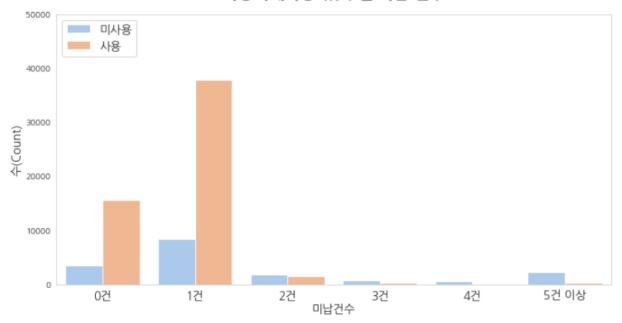
관리비 미납건수



- 관리비 미납건수는 자산가치 보다 개인의 성격 및 성실함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음.
- 관리비 납부 성실도(미납건수)에 따라 금융상품 할인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리비 미납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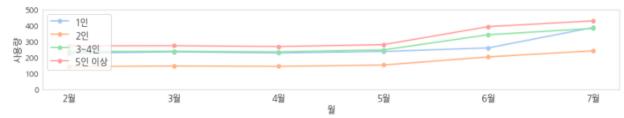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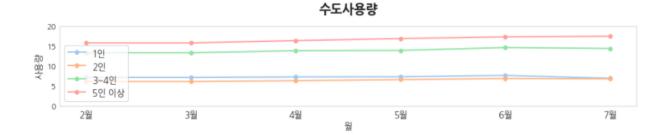


- 관리비 납부를 잊거나 늦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이체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모든 세대구성원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는 세대가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많음.
- 미납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자동이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가 사용하는 세대보다 많음.
- 잔액 부족으로 관리비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이체 기능이 미납을 100% 방지해주지는 못함. 하지만, 미납건수를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양한 종류의 카드사들은 자동이체 기능을 사용할 경우, 관리비 할인, 캐시백, 기타 등의 혜택을 제공함.

관리비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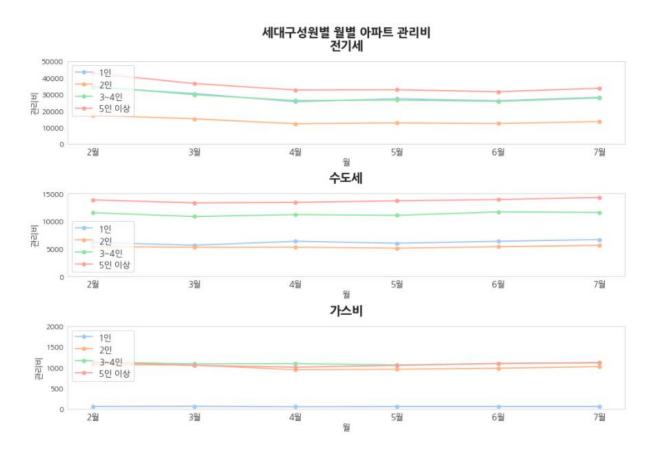








- 세대구성원 수와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은 대체로 **비례함.**
- 전기, 수도 사용량은 1인 가구가 2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며, 가스 사용량은 전반적으로 유사함.
- 1인 가구의 전기 사용량이 3, 4인 가구의 사용량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 서울시 1인 가구 전력소비량은 4인 가구 1명의 2.6배라는 자료를 통해 1인 가구의 전기소비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서울연구원, 2013).



- 전반적으로 관리비 비용은 사용량과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비교적 1인가구는 가스비에 비해 전기세와 수도세가 많이 부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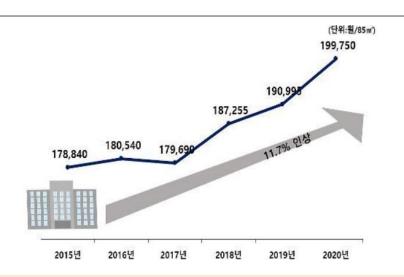
관리비 할인의 필요성

RESULT

아파트 관리비 5년 새 12% 올라… 물가 상승률의 2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2015년 ㎡당 월평균 2천104원이었던 관리비가 지난해 2천350원으로 올랐다고 5일 밝혔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환산하면 17만8천840원에서 19만9천750원으로 11.7% 상승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5.42%)의 2배가량 되는 수준이다."

- 〈매일경제〉 2021.04.05. 기사 中



7월 요금 할인 축소… 1인 가구 전기요금 오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천 원 오른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7월부터 월 4천원에서 월 2천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혜택은 점차 줄인 뒤 2022년 7월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 〈중부일보〉 2021.06.15. 기사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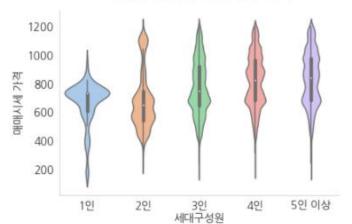
✓ 1인가구들을 위한 관리비 할인, 나아가 미납 건수가 적은 고객들에게는 추가 할인율을 제공하는 혜택 제안

아파트 시세

RESULT



- 3~6억원대 아파트가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게 인기가 많으며, 세대구성원 수가 많아질수록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음.
- 자산가치가 낮은 1인 가구에서는 3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나머지 가구에 비해 높음.
- 1인가구는 다른 가구들에 비해 더 저렴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2021. 11. 25.

전용면적

RESULT

2인

3인 세대구성원 4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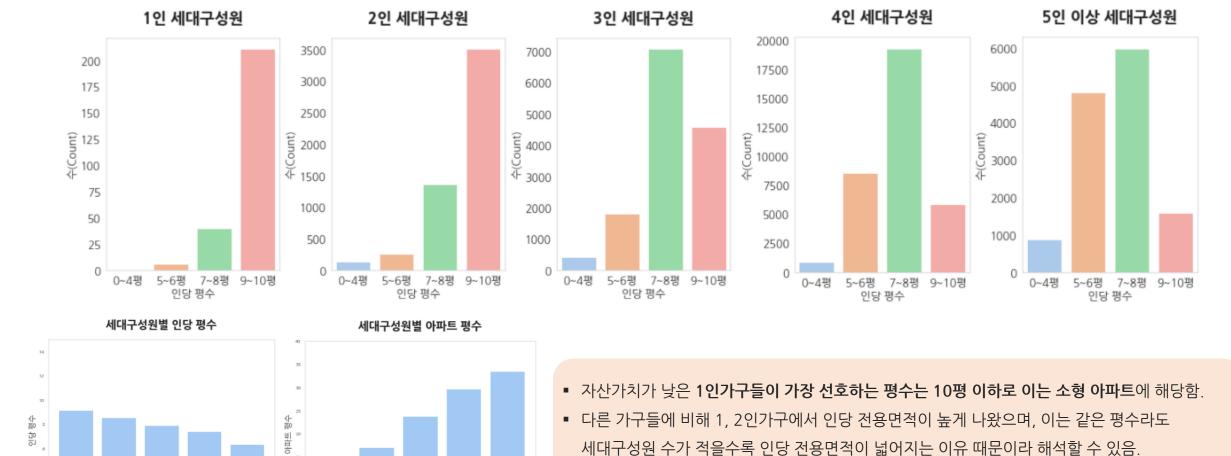
5인 이상

1인

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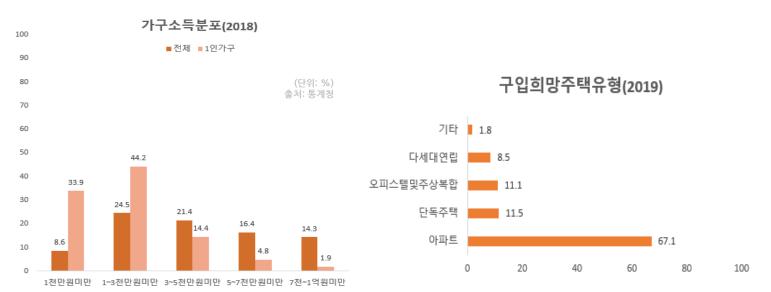
4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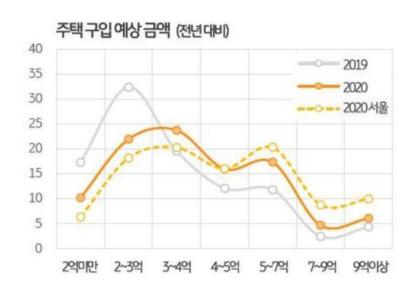
5인 이상



■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계층의 1인당 주거면적은 평균 30.3㎡임.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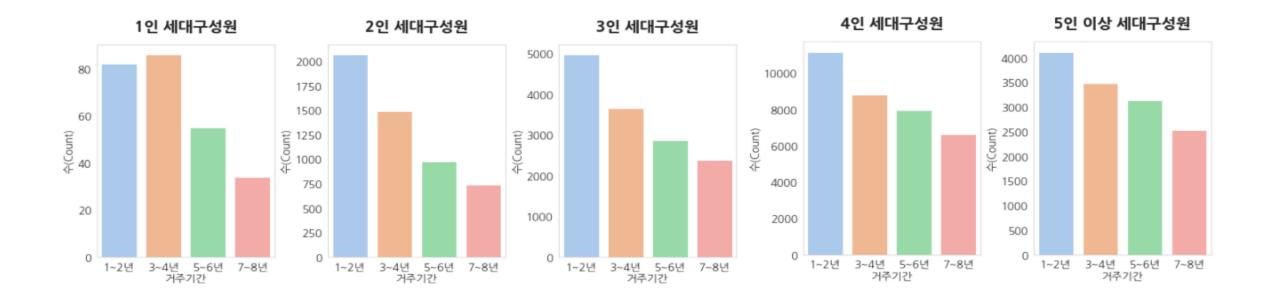


1인 가구 첫 40% 돌파…주택시장, 실속 있는 소형 아파트 인기

1인가구 600만 돌파 눈앞… 초소형 아파트 '인기 고공행진'

"1인가구 증가·분양가 부담" 아파트 전용 60㎡ 이하 '전성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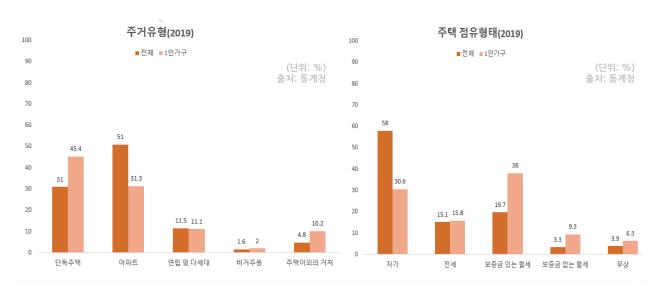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저렴해 부담이 낮은 소형 혹은 초소형 아파트를 1인가구들이 선호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 전반적으로 거주기간 1~2년이 가장 많으며, 3~4년, 5~6년, 7~8년 순으로 나타내며, 단기간 거주하는 임대 세대들이 많음.
- 1인가구에서는 3~4년의 분포가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가구들과 비슷한 그래프 형태를 보임
- 2020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이 한 주택에서 평균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은 6.1년(전국적: 7.8년, 자가가구: 10.6년, 임차가구: 2년)

이사 할인의 필요성

RESULT



예스2404 서비스 특징



직거래 이사서비스

소개, 알선등의 불 필요한 중개수수료 없이 소사장 (작업자)과 이사고객이 직접 거래합니다.



이사가격

직거래이므로 중간 마진이 없어 메이저 이사대행 업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30평 이하 고객에 한함)

현행 아파트 매매 수수료 체계 및 권익위 개편안

수수료율	
0.6%	
0.5%	
0.433	
0.5%	
0.9%	



중개수수료 내린다지만... "여전히 비싸다" 계속되는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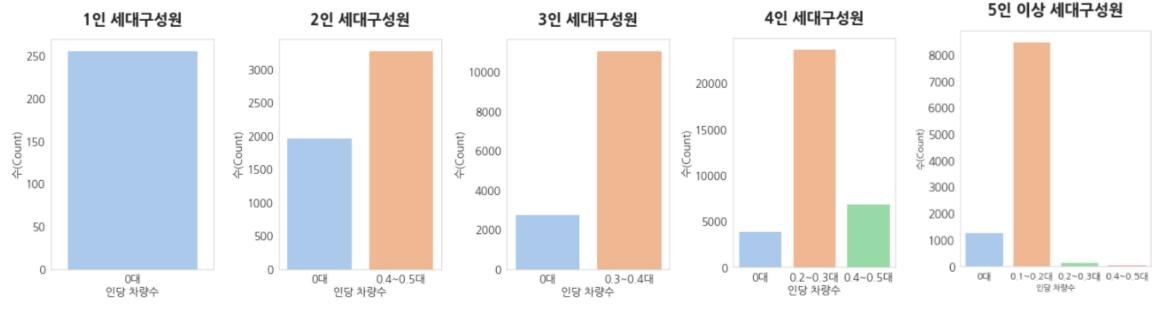
"10월부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이번 개정은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 상한요율에 변화를 준 것이 핵심이다. …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목소리가 많다. 오는 10월에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직장인 김모(40)씨도 "0.4% 수준의 수수료만 생각하고 있었다. 2년 전에도 수수료는 이 정도만 줬다"면서 "전셋값이 오르면서 내야할수수료가 늘어난 셈인데 뭘 인하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 〈조선비즈〉 2021.09.11 기사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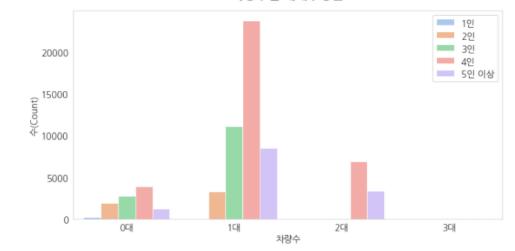
✓ 주거안정성이 떨어져 이사가 잦은 1인가구들을 위해 저렴한 직거래 이사업체 연계 및 중개수수료 일정 부분 지원 혜택 제안

차량 대수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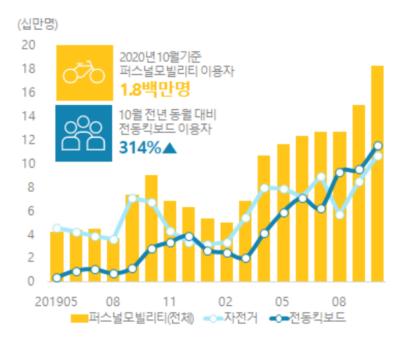
차량수별 세대구성원



-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1인가구**에서 가장 많으며, 세대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차량을 보유한 세대의 비율도 함께 증가함.
- 3인 이상 가구에서는 1인, 2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차량 보유율이 훨씬 높음.
- 서울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0.3대이며, 전국 기준으로는 0.5대임.

RESULT

월간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 규모 추이



공유 모빌리티, 코로나시대 '비대면 이동수단' 각광... 국내 시장규모 3년새 3배 커져

"전동킥보드 언제 비싸졌대?"...슬그머니 가격올린 1인 모빌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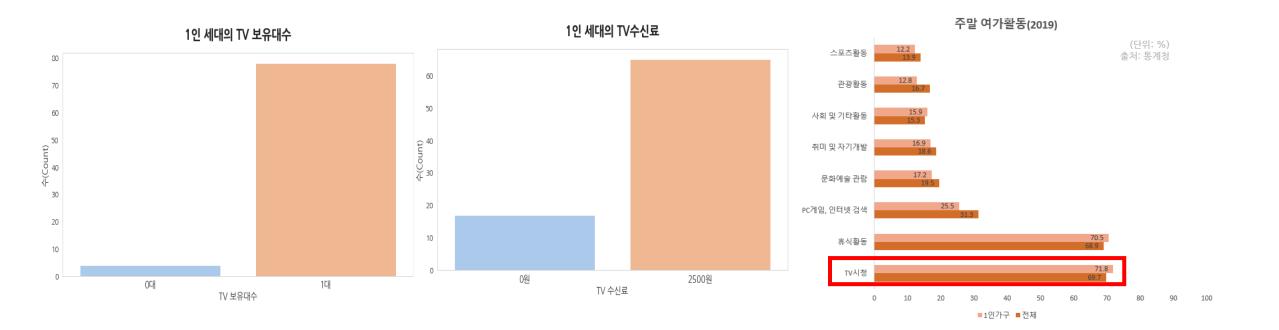
카카오T바이크 요금 인상…시간당 6천원→9천200원

┃ 기본요금(15분 기준) 조정·분당 요금 지역별로 '40~50원' 올려



✓ 자차가 없는 1인가구들을 위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 제안

TV 대수



- 아파트에 거주중인 1인가구의 대부분은 TV를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혜택을 제공받아 TV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는 세대들도 존재함.
- 2020년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가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 시청임.

IPTV 월정액 할인의 필요성

RESULT

태블릿 IPTV의 활성화

TV 안 보는 '코드커팅 '위기에… IPTV 3tk, '태블릿'서 해답 찾는다

"태블릿 IPTV는 이동 제약이 큰 기존 TV와 달리 어디서든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대안 TV다. 경제적 부담과 공간 제약으로 TV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IPTV 시청을 원하는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다. … SK브로드밴드의 Btv에어 기준으로 기존 IPTV와 똑같은 월 1만6500원(3년 약정 기준)의 요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IPTV 가입자는 반값 요금 추가로 태블릿 IPTV에 가입할 수 있다."

- 〈조선비즈〉 2021.08.02. 기사 中



TV 수신료 부담 증가

KBS 수신료 2500→3800원 인상 의결… 52% 증가

"KBS 이사회가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기로 30일 결정 했다. 52% 증가한 금액이다. … 이사회는 지난 1월 경영진이 제출한 월 3840원 안을 두고 고민하다가 최종 3800원으로 확정했다."

- 〈동아닷컴〉 2021.06.30. 기사 中

2000년 이후 KBS 수신료 인상 시도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19)〉

	월 금액	결과
2004년	4000원(1500원 🕇)	🗙 KBS 이사회 상정 불발
2007년	4000원(1500원 👚)	🗙 17대 국회 회기종료 폐기
2010년	3500원(1000원 🕇)	🗙 18대 국회 회기종료 폐기
2013년	4000원(1500원 🕇)	🗙 19대 국회 회기종료 폐기
2021년	3840원 (1340원 ↑)	1월 27일 이사회 상정

✓ 디지털 콘텐츠 시청이 잦은 1인가구들을 위해 태블릿 IPTV 월정액 할인 혜택 제안

Solution

SUMMARY

PNU은행: 심비 카드



✓ 아파트 관리비 최대 12% 할인: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 청구할인

- 단, 지난달 실적 400,000원 이상 사용시
- 미납건수에 따른 차등 할인 적용(12개월 기준):
- (1). 미납 건수가 0건: 12% 할인 적용
- (2). 미납 건수가 1~2건: 10% 할인 적용
- (3). 일반: 8% 할인 적용
- 단, 지난달 실적 400,000원 이상 사용시

✓ 대중교통 할인 10% 할인: 후불교통 카드 선택 시

-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
- 교통수단: 버스/지하철/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 단, 공항버스, 공항리무진, 공항철도, 터널, 인천대교, 신공항 하이웨이 제외
- 공유 모빌리티의 경우, 충전 시 건당 1,000원 할인

✓ 스트리밍 서비스(OTT, IPTV) 최대 5% 할인:

- 할인대상: OTT(넷플릭스, 티빙, 멜론, 지나뮤직), IPTV(B tv air)
- 지난달 실적 400,000원 이상 사용시(월 최대 2,000원까지 할인 적용)
- (1). 일반: 3% 할인 적용
- (2). 우대: 5% 할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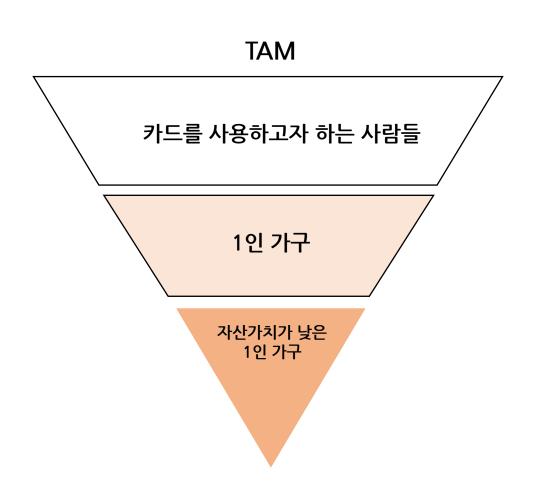
✓ 부동산중개 비용 최대 10% 할인: 부동산 계약 및 영수증 제출

- 매물에 대한 법정수수료 기준 10%까지 할인
- 단, 지난달 실적 500,000원 이상 사용 시 적용
- (1). 일반: 5% 할인 적용
- (2). 우대: 10% 할인 적용

✓ 거주지 이사비용 최대 3% 할인: 이사업체 견적서 및 영수증 제출

- 이사업체 견적서 기준 최대 3%할인
- 단, 지난달 실적 600,000원 이상 사용 시 적용

BEACHHEAD MARKET -



〈전국 1인가구 수 *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비율〉 9,367,439 X 0.78 = 7,306,602(명)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Conclusions

CONCLUSION

※ 시사점

- ✓ 국내 아파트 관리비 데이터 분석과 현재 사회이슈 파악을 통해, 1인가구에게 필요한 금융 혜택을 제안함.
- ✓ 관리비 미납건수에 따라 카드 할인 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함.
- ✓ 비교적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낮은 1인가구를 주요 타겟층으로 향후 수익성이 있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음.

※ 한계 및 발전방향

- ✓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제안한 금융서비스로써,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고객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 ✓ 본 프로젝트 결과는 2021년 상반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였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을 확장하여 고객의 패턴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 아파트 시세를 분석에 반영할 때 2021년 8월 초의 시세를 사용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상승 및 하락율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본 프로젝트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는 충실도 및 표본 수에서 제한적인 면이 존재하여,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추가 변수 반영 등으로 제한적 요인을 극복하여 분석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